

뿌리가 박혀있던 밑의 절벽이 무너져 내려 허공에 뿌리가 노출된 채 버티고 있는 것도 보여 끈질긴 생명력에 경이로움까지 느껴진다. 강변에 핀 버들강아지는 만개하여 활짝 웃고 있고 이미 갖가지 나무에서 꽃가루가 많이 날고 있어 시야가 어지럽다. 워낙 인적이 드물고 한적해 한탄강의 원초적 모습이 절로 연상된다. 절벽사이 좁은 하늘 저 멀리로는 아직 떠나지 않은 두루미와 기러기 등 겨울 철새들이 V자 대형을 이루며 반갑게 무리를 지어 날고 있다. 그들의 모습이 곧 떠날 채비를 서두르는 듯 분주하게 보이는 것은 가는 겨울에 대한 아쉬움과 오는 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강회동 한탄강 하류 쪽

이곳의 강 양안 절벽은 얼핏 보면 대칭을 이루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서쪽과 동쪽의 절벽 모양이 많이 다르다. 서쪽의 절벽은 현무암이 수직으로 깎아지른 듯이 30m 높이 층층대를 이루고 있고 곧 무너질 듯하고 아슬아슬하다. 절벽 밑에는 오랜 세월 무너져 내린 현무암이 수두룩하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전형적인 한탄강 현무암 수직절벽의 모습이다. 동쪽의 절벽은 절벽이라기보다

경사가 급한 언덕에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다. 무성한 활엽수에 가려서인지 절벽을 이루는 현무암이 잘 드러나 보이지도 않는다. 이는 철원평야와 한탄강이 처음 생성될 때 어느 쪽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흘러왔는지를 연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무너진 단면을 보면 북서쪽에서 남동방향으로 흘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탄강 물길에 고정된 후 오랜 세월 어떻게 서서히 침식이 되었는지도 상상이 간다. 한탄강은 한반도 중부지방 용암대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지각활동이 전개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지질자원의 보고다. 이는 한탄강만이 가지는 특성으로 다른 지역 강과 차별화되는 요소이다. 강 양안 식생분포는 햇빛 방향에 따라 식물들 특히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늘 지역에는 왜소하고 불품없는 나무들만이 자라고 그나마도 절벽에 아스라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다. 반면 하루 종일 햇볕이 드는 반대편에는 수풀이 무성하고 흙바닥이 부드럽게 깔려있다. 거기에다가 현무암이 적고 뾰얀 화강암들이 눈에 띄며 하얀 자갈이 많고 군데군데 모래사장도 발달되어 있다.

▶ 강회동과 금월동 사이 한탄강 여울

강회동에서 금월동 방향으로 강을 따라 하류 쪽으로 건다보면 강폭이 다소 넓어지면서 하얀 자갈들이 많이 보인다. 동송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자주 눈에 띄는데 근처에 취수장과 정수장이 있기 때문이다. 강물 흐르는 소리가 30m 절벽 위까지



강회동~금월동 중간지점 한탄강

들릴 정도로 크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도 정겹게 들린다. 마치 초등학교들 소풍갈 때 즐거워서 떠드는 분위기라고나 할까. 이는 한탄강(漢灘江) 탄(灘)자가 왜 여울 탄자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울은 물방울이 튀고 물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강의 상류 지역을 통상 일컫는다. 오덕7리 소공원을 지날 무렵 여름철새들이 지저귀며 오가는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한편 저 멀리서는 아직 돌아가지 않은

겨울철새인 쇠기러기 떼들이 편대를 이루며 북쪽으로 유유히 날아간다. 그리고 보니 이맘때는 겨울철새와 여름철새가 일시적으로 동거하는 계절인 듯하다. 올해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일찍 시작되어 여름철새가 일찍 온 셈이고 반면 겨울철새들은 미처 갈 채비를 못 한 듯하다. 따스한 봄 햇빛과 청명한 하늘, 이제 막 빼꼼 얼굴을 내미는 들꽃들이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한층 가볍게 한다. 철원평야(대야잔평) 건너 저 멀리 우뚝 솟아있는 금학산은 철원군의 수호신인양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하류 쪽으로 가면서 보니 강물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데 강물도 부지런히 흐르다가 힘이 들면 잠시 쉬었다 가는 것 같다.

▶ 현무암 기암괴석 박물관, 금월동 현무암대

한탄강은 금월동에 이르러 소나무와 은사시나무가 무성한 야트막한 동산을 끼고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강폭이 100m에 이를 정도로 넓어진다. 500~600m 아래쪽에는 콘크리트 보가 있어 많은 물이 담수되어 굉장히 크고 넓게 보인다. 이 보의 맨 위쪽에 있는 것이 갈말취수장이고 중간에는 동송취수장이 있어 철원군민 3/4이 여기 물을 먹는 셈이다. 취수보를 지나면 강물은 왼쪽으로 꺾이고 좀 더 아래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이내 남쪽으로 흘러간다. 강물이 꺾이고 굽이치는 지역의 절벽은 유난히 더 많이 파여 있고 절벽 위에서 무너져 내린 현무암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오랜 세월 자연이 만들어낸 기묘묘한 형상에 위압도 되고 그 위용에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다. 취수보 바로 밑 한탄강 바닥 500m 넓이에 깔려있는 현무암을 보고 있노라면 철원군 현무암을 모두 모아놓은 듯하다. 이 곳의 현무암은 일단 모양이 불규칙하고 잘린 단면들도 거칠고 뾰족뾰족하다. 거기다가 구멍이 숭숭 뚫려있어 어찌 보면



금월동 한탄강 상수도 취수장

강물이 꺾이고 굽이치는 지역의 절벽은 유난히 더 많이 파여 있고 절벽 위에서 무너져 내린 현무암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오랜 세월 자연이 만들어낸 기묘묘한 형상에 위압도 되고 그 위용에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다. 취수보 바로 밑 한탄강 바닥 500m 넓이에 깔려있는 현무암을 보고 있노라면 철원군 현무암을 모두 모아놓은 듯하다. 이 곳의 현무암은 일단 모양이 불규칙하고 잘린 단면들도 거칠고 뾰족뾰족하다. 거기다가 구멍이 숭숭 뚫려있어 어찌 보면

징그럽게까지 느껴질 정도다. 일부 바위들은 단면이 너무 거칠고 뾰족해 자칫 걸려 넘어지면 다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강바닥에 새카맣게 깔린 현무암

이곳의 현무암은 용암이 급속하게 굳어서 만들어졌기 보다는 식물이나 나무들 같이 현무암 바위가 바닥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다. 이곳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원시적이고 투박한 현무암들이 즐비하게 널려있기에 한탄강 탄생 초기 비밀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마치 현무암 박물관에 와있는 기분이다. 기기묘묘한 바위 형상하며 현무암 절벽이 지금도 막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지표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십만 년 장구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용암대지 철원군은 지금도 살아 숨 쉬는 젊은 땅인 것이다. 강 한가운데 가장 크고 높은 현무암 바위 위에 올라가 주위를 내려 보니 마치 내가 현무암 전단을 이끄는 함장이 된 기분이다. 주변의 현무암 바위를 자세히 보면 켜켜이 층을 이루며 형성된 모양을 볼 수 있다. 한탄강 생성의 열쇠가 거기에 있다. 유로가 어떻게 형성되고 절벽은 어떻게 침식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풀어줄 단초가 된다. 사람들 발길이 뜸한 지역이라 현재 바닥에 여기저기 퍼져있는 현무암 더미 자체가 천연의 관광자원이고 볼거리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현무암 절벽을 지나서 샛길을 통해 절벽 위로 올라오는데 봄을 알리는 전령사인 앵초와 현호색이 반갑게 웃고 있다. 그리고 참새무리들이 우거진 숲속에서 요리 윙기고 저리 윙기고 정신을 혼란하게 한다. 갓가지 여름철새 소리와 한탄강 물소리가 묘한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합창을 들려준다.

▶ 아기자기한 주상절리가 일품인 무당소

금월동에서 직탕으로 내려가다 무당소 양수장이 나온다. 무당소 양수장 상류 쪽 서쪽으로는 커다란 바위들이 많고 잡목이 우거져서 강변을 따라 오르내리는 것이 어렵다. 강폭이 10m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좁고 경사가 저 유속이 빨라서 물소리가 비교적 요란하다. 대부분 한탄강 절벽은 서쪽이 멋있는데 이곳은 동쪽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고 적절한 현무암 절벽과 우거진 나무가



무당소 양수장 근처 한탄강

조화를 이뤄 아름답다. 현무암 절벽 위로 설치되어 있는 탐방로 펜스가 절벽과 조화를 이뤄 아름답다. 새카맣고 이끼 낀 현무암과 탐방로 펜스, 주변 논과 밭이 조화를 이뤄 따스한 봄날 절로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다. 동쪽 경사면 아래쪽으로는 오랜 세월동안 무너져 내려 자연적으로 가지런히 정리된 현무암 더미들이 보인다. 그 위에 화강암으로 석축을 쌓아 탐방로를 조성한 것이 한 폭의 수채화 같다. 남쪽 하류 방향 저 멀리 직탕이 어렴풋이 보이고 장흥리와 상사리를 잇는 상사교가 눈에 들어온다. 한탄강 하류 대부분이 현무암이 시커멓게 깔려있고 강폭은 넓어지나 가뭄으로 강바닥이 드러났다. 무당소 양수장 바로 옆 현무암절벽은 아기자기한 주상절리를 이루며 독특한 풍광이다.

▶ 주상절리에 폭포수 커튼이 드리워진 직탕(直湯)



강바닥 자체가 주상절리인 직탕폭포

직탕은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한탄강의 명소다. 무당소 양수장과는 1km도 안될 정도로 가깝다. 직탕 상류 쪽 한탄강 풍광도 멋진데 일반인들이 잘 몰라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 다소 아쉽다. 하지만 한탄강 상류 비경이 하나씩 알려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한탄강을 찾는 관광객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베일에 싸였던 한탄강이 비로소 직탕에 이르러 강물 전체가 폭포를 이루며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선을 보이는 것이다. 폭포 자체의 높이는 3~4m로 그리 높지 않으나 70~80m 강폭을 따라 벌집같이 깔려있는 현무암 주상절리를 따라 일렬로 떨어져 내리는 폭포는 가히 일품이다. 강물이 높은 곳에서 웅장하게 떨어지는 장관은 아니나 긴 강에 커튼이 쳐진 것같이 요란하지 않고 시원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직탕폭포 아래쪽에서 폭포를 바라보면 강폭 좌우로 가지런하게 놓인 주상절리가 마치 천지신명께 제를 올리는 제단 같다. 가뭄이 심할 때면 강바닥 현무암 주상절리가 모두 드러나 거대한 팔 시루떡을 깔아놓은 듯하다. 7~8월경 비가 많이 와 수량이 늘면 폭포의 강물 소리가 우레와 같고 물보라가 일어 무지개가 만들어질 정도로 우렁차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3~4m 폭포를 오르지 못하는 고기들이 폭포 아래에 많이 머무르고 있어 고기 반 물 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직탕 주변에는 많은 낚시꾼들이 붐빈다.

폭포의 바로 위에는 상사교라는 다리가 있다. 다리의 높이가 5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다리이나 오랜 세월 강 서쪽의 장흥리와 동쪽의 상사리를 잇는 유일한 다

리였다. 한탄대교와 태봉대교가 놓이기 전까지는 승일교 다음으로 철원군의 동과 서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 직탕 경관에도움이 되지 않으니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소박한 다리가 직탕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직탕폭포 양 옆에는 그리 높지 않은 아담한 주상절리가 많이 발달해 있다. 주상절리 틈에 한탄강 자랑거리인 돌단풍이 여기저기 자라나고 진달래와 철쭉꽃이 소담스럽게 피어있다. 차가운 바위 틈에서 철원의 맹추위를 이겨내고 이른 봄 가장 먼저 피어나는 돌단풍은 동강 할미꽃에 비견되는 한탄강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한편 현무암 바위에는 고급 양탄자를 펼쳐놓은 듯 이끼가 잔뜩 덮여있다.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녹색이 햇빛에 반사되어 유난히 선명하며 손으로 만져보면 폭신평신했 촉감이 아주 좋다. 직탕폭포는 좌·우·위·아래 보는 방향에 따라 그 느낌이 전혀 다르다. 폭포의 서쪽 아래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멋있고 웅장하며 폭포소리도 크게 들린다.



직탕폭포 바로 밑에 발달한 주상절리



상사교에서 바라본 직탕 상류

상사교에서 북쪽 상류 쪽을 바라보면 강폭이 넓고 시야가 확 트여있다. 강 동쪽 절벽은 서쪽보다 경사가 완만하고 나무가 무성하며 절벽 위로는 한탄강 둘레길 펜스가 선명하게 보인다. 동쪽 절벽 끝나는 곳에 무당소 양수장이 보이고 가뭄으로 물이 적어 강바닥이 드러난 곳에는 무수히 많은 현무암들이 틈도 없이 빼곡하게 모여 있다. 직탕폭포 아래쪽에는 시퍼런 색깔을 띤 강물이 조그만 소를 이뤄 물의 양이 제

법 많고 주변 강바닥에는 현무암이 많지만 화강암도 많이 눈에 띈다. 화강암은 평강 오리산 화산이 폭발해 용암이 덮이기 전 한탄강 기저에 있던 것이다. 저 멀리 남쪽에 주황색 태봉대교가 위용을 자랑하고 강 양쪽으로 커다란 현무암 바위더미들이 새카맣게 강을 에워싸고 있다. 이곳 현무암 사이에 오솔길이 조성되어 있어 절벽과 강물 사이에서 구멍 송송 뚫린 시커먼 바위의 기운을 느끼면서 걸을 수 있다. 서쪽 절벽 위 한여울길을 따라서는 파스텔 톤의 목가적인 펜션들이 줄지어 서있다. 한여울길과 절벽 사이를 막고 있는 안전펜스도 아래쪽 한탄강 바닥에서 보면 미학적으로 디자인해 설치한 조형물처럼 아름답다. 태봉대교에 다다르면 직탕폭포 물 떨어지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강폭은 넓어진다. 강물은 많으나 흐름이 거의 멎어있고 고요하다. 가끔 태봉대교 위에서 ‘번지’를 외치며 뛰어내리는 번지점프 도전자들의 외침만이 한탄

강 양안 사이의 정적을 깨며 메아리친다.

▶ 다리 위에서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는 태봉대교



직탕폭포에서 바라본 태봉대교

태봉대교는 장흥리와 상사리를 잇는 대형 다리로서 주황색 철제빔으로 만들어져 저 멀리 철원평야 한가운데서도 눈에 띈다. 태봉대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일반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번지점프로 유명하다. 태봉대교에서 사방을 쳐다보면 주위 철원평야와 한탄강이 훤히 내다보이고 저 멀리 철원군 중심축인 금학산과 명성산도 한눈에 들어온다. 태봉대교 밑의 한탄강은 넓은 강폭에 옥빛 강물이 가득 차있고 마치

멈춘 것처럼 조용히 흐른다. 태봉대교 남동쪽 한탄강 절벽을 따라 구불구불 난 농로길을 따라 걷다보면 싱싱한 흙냄새와 여름철새의 낭랑한 울음소리에 흥이 절로 난다. 논둑길에는 꽃다지가 잔뜩 피어 온 세상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고, 그 옆 밭에는 이제 막 올라온 녹색 마늘이 유독 싱싱해 보인다. 태봉대교 남서쪽 절벽을 따라서 연두색·보라색·남색 등 각양각색의 펜션들이 들어서 있고 뒤편 황토색 너른 들과 조화를 이뤄 한 폭의 수채화 같다. 절벽 아래쪽 소공원에는 한여울길을 오가는 도보여행객이 잠시 쉴 수 있는 정자가 있고 단체 행사도 가능하겠다. 강 건너편에는 자작나무 군락이 햇빛에 반사되어 은색의 나무물결이 반짝이는데 푸른 소나무와 대조를 이룬다. 강물은 이 부근에 이르러 가장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송대소를 향해 내려간다. 강폭이 넓고 깊이가 얇은 경사진 강바닥을 하얗게 포말을 일으키며 부지런히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신이 난다.

▶ 최고의 수직적벽 주상절리가 있는 송대소(松臺沼)

송대소는 한탄강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철원군 한탄강은 대부분 수직절벽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송대소 기암절벽과 주상절리는 한반도 최고 절경이다. 북쪽에서 유입되는 강물은 송대소 입구에서 좌로 90도 꺾이고 300m 정도 흐르다 다시 우로 90도 꺾어 남쪽으로 향한다. 송대소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는 여러 군데 있다. 그런데 보는 위치에 따라 그 모습이



다 다르고 특색이 두드러져 어디가 으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송대소 위 북서쪽 절벽에는 예전에 홍수 예방을 위해 식재했던 미루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키가 큰 나무는 높이가 30m에 이를 정도로 우람해 주변의 절벽과 조화를 이룬다. 미루나무 군락 아래쪽으로 송대소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단위 쉼터나 조출한 공연행사를 치르기에 적격이다. 공원의 강 건너편 동쪽 절벽은 마치 극장의 스크린처럼 위에서 아래로 평평하게 주상절리가 펼쳐져 있다. 절벽의 오른쪽에는 높이 5m, 길이



70m 가량 야트막한 주상절리가 마치 로마 군단이 방패로 성을 쌓아놓은 듯이 우뚝 서있다. 오각 또는 육각기둥 형태 바위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것이 마치 굵은 장작을 차곡차곡 정렬해 놓은 듯하다. 돌기둥 틈새에는 돌단풍들이 어지러이 피어있어 건너편 절벽 위에서 보면 새카만 숲 더미 위에 자수를 놓은 듯하다. 바로 밑을 흐르는 강물에 투영된 주상절리와 돌단풍 모습

이 실제 주상절리와 대칭을 이루어 실제보다 더 길고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한다. 주상절리의 검은 색과 뒤편의 자작나무 군락 흰색 물결이 대조가 되어 색다른 조화를 이룬다. 주상절리 아래로 펼쳐진 모래밭과 강물에는 이따금 청둥오리를 비롯한 여름 철새들이 찾아들어 한가로이 노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풍경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풍광이다.

강 건너편 절벽은 지층의 켜가 7~8개나 되고 높이가 30~40m에 이를 정도도 장엄하다. 강과 맞닿은 절벽의 밑은 마치 물속으로 빨려들어 갈듯이 서있어 정면에서 마주보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넘어올 듯하다. 현무암 주상절리는 지층에 따라 붉은색, 회색, 검은색, 황토색 등 색깔이 모두 달라 시차를 두고 여러 번 화산폭발과 용암 분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상절리 절벽



중간쯤에는 유난히 검은색 띠도 보이고 군데군데 지름 3~4m 정도의 동굴 같은 구멍이 송송 뚫려있어 왜 발생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는 용암이 갑자기 식으면서 수축작용이 일어나 결정체간에 큰 틈이 생긴 것이다. 아니면 성질이 다른 암석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동굴이고 해당 지표면에 예전에 물줄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 절벽의 최고 상층부를 따라 갖가지 나무가 연이어 있고 철원군 문화생태탐방로 '한여울길' 안전펜스가 줄지어 서있다. 이러한 풍광에서 소나무 송(松), 높고 평평한 곳을 뜻하는 돈대 대(臺), 연못 소(沼)를 쓰는 송대소(松臺沼)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는지 짐작

이 간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송도 사람 3형제가 여기 와서 두 사람은 이무기에 물려죽고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이무기를 잡았다 하여 “송도포(松都浦)”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송도포를 일명 “송대소”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슬픈 전설을 아는지 모르는지 강물은 말이 없다. 이곳의 강물을 말 그대로 고인 연못과 같이 거의 정지되어 있다.



한탄강얼음트레킹의 최고 적지 송대소

송대소 북쪽 절벽은 옛 문헌기록에 왜 한탄강 절벽을 수직적벽(垂直赤壁)이라는 표현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곳이다. 이 북쪽 절벽을 유심히 보면 10~11켜에 해당하는 지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쪽 남쪽 절벽보다 더 많은 용암 커를 볼 수 있고 각 커마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 철원평야 용암대지 탄생과 한탄강 생성에 관한 지질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이곳 수직적벽은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더 패어있어 수직이라기보다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 금방이라도 넘어올 형상이다.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경관이 송대소 주상절리의 묘미다. 수직적벽 위로 탐방로가 나있고 절벽 끝선을 따라 탐방로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문창살 같이 아름답다. 절벽의 맨 밑 강물과 맞닿은 곳에는 잔잔한 주상절리가 발달되어 있는데 수직적벽을 떠받드는 별도의 제단을 쌓아놓은 듯하다. 이 수직적벽 밑이 송대소에서 가장 깊다고 알려진 곳이다. 송대소의 소(沼)는 물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래되는 이야기로는 명주실 한 타래가 다 풀려 들어갈 정도로 깊다고 한다.

송대소를 지난 강물은 오른쪽으로 90도 방향을 돌려서 남쪽으로 흘러간다. 꺾이는 안쪽에는 모래사장이 있고 바깥쪽에는 한탄강에서 가장 크고 넓은 화강암 바위가 버티고 있다. 아마도 이 거대한 화강암 바위가 다른 곳으로 흘러 넘쳐 나가려는 한탄강 물줄기를 수만 년 동안 가로막고 서있는 듯하다. 너무나도 거친 물결을 오랜 세월 버텨내서인지 이곳의 바위는 유난히 뾰얏고 표면이 매끄럽다. 한탄강 바닥의 화강암은 화산폭발로 뒤덮였던 현무암이 오랜 세월 강물에 깎이고 쓸려나가 그 기저에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곳부터 하류 쪽 약 2km 구간은 대규모 화강암이 바닥에 깔려있고 강 양옆으로 주상절리가 이어지고 절벽 밑에는 현무암이 수북이 쌓여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강바닥이 다소 경사를 이루고 있어 송대소에 모였던 강물이 출구를 찾아서 일제히 힘차게 흘러내려가고 시원한 강물소리와 여름철새 소리가 강 양쪽 절벽사이에 울려 퍼진다. 이곳이 철원군 한탄강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수직절벽을 보면 현무암 용암이 전체적으로 20~30m 깊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가을 단풍이 특히 아름다운 송대소~마당바위 구간



송대소를 지나 생태탐방로 초입새에서 나무 사이로 건너편 전경을 바라보면 강바닥에는 뾰얀 화강암들이 널려있고 그 사이로 흘러내려가는 쪽빛 강물이 보이고 그 뒤로 황토 빛과 시퍼런 빛을 띤 현무암 기암절벽이 턱 버티고 서있으며 절벽 밑에는 새카만 현무암 바위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 절벽 위 라인에는 한여울길 안전펜스가 연이어 있고 그 위로 비온 뒤 맑게 갠

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이 유난히 선명하다. 절벽 군데군데 물감을 뿌려놓은 듯 진달래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회색빛 바탕에 분홍빛이 이채롭다. 꽃과 나무, 돌과 바위 그리고 강물이 한 폭의 그림을 선사한다. 경사진 강바닥을 강물이 우렁차게 흘러 그 소리가 절벽사이에 울려 퍼지고 남쪽으로부터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니 탐방로를 걷는 이들은 절로 힘이 나고 발길이 가벼워진다. 강바닥에는 크기가 20m 될 정도로 거대하고 갖가지 모양을 한 화강암들이 즐비하다. 화강암 표면은 미끄럽고 경사가 저 있어 바위 위를 지날 때면 자세를 낮추고 조심조심 발길을 옮겨야 한다. 그중에 첫 번째로 눈에 띄는 화강암은 지질시대 쥐라기 후기에 번성했던 공룡의 한 종류인 “알로사우루스(Allosaurus)” 형상을 한 것이다. 거대한 도마뱀 같기도 하고 거대한 메뚜기 같기도 한데 그 크기는 공룡보다 크다.

하류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강 동쪽에 200평이 넘는 거대한 화강암이 있고 강 건너편 서쪽에는 무너져 내린 현무암들이 소북이 쌓여있다. 한탄강에 있는 화강암과 현무암은 서로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서로 돋보이게 한다. 거대 화강암을 지나 미끄러지듯이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 마당바위 못 미쳐서 한탄강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 화강암 더미들을 만나는데



천연 징검다리를 놓은 듯하다. 이곳 화강암들은 특별한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나 한탄강의 물줄기를 가로막을 정도로 군락을 이루고 있어 마치 바닷가에 커다란 물범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이 거대한 화강암 무리를 건너편 절벽 위에서 자세히 보면 커다란 꺾지가 마당바위를 향해 뛰어오르는 모양이어서 “꺾지바위”라고도 한다. 서쪽 절벽의 농업용 양수기는 철원평야로 열심히 물을 퍼 올리고 있다. 이곳의 강 양안은 서로 모양이 다르다. 서쪽은 높은 절벽을 이루며 주상절리가 발달한

반면 동쪽으로는 절벽이라기보다 그냥 경사진 언덕에 다양한 화강암 바위가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 진달래와 철쭉이 피어있다. 화강암 바위틈에는 역시 분홍빛을 띤 돌단풍 꽃이 많이 피었고 어떤 바위에는 짙은 녹색의 이끼가 잔뜩 끼어있어 마치 담요를 뒤집어쓰고 있는 것 같다.

▶ 강물과 화강암·현무암이 빚어낸 한반도지형(마당바위)



커다란 발 모양의 마당바위

마당바위는 방금 땅속에서 용암이 뿔쳐나와 썩 퍼져있는 듯하다. 거대한 바위 밑에 지표에서 들떠있고 그 밑에는 작은 바위들이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어서 신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놓은 거대한 구들장 같다. 마당바위를 기준으로 주위에 화강암 바위들이 호위하듯 둘러싸고 있고 그 가장자리에 모래사장이 있다. 강 중심 쪽으로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고 있고 화강암 바위의 표면은 그 어느 곳보다도 매끄러워 미끄럼틀에 올라있는 것 같다. 표면이 완전히 평탄한 것은 아니고 군데군데 울퉁불퉁 굴곡이 보인다. 표면의 색깔은 뽀얀 아이보리색이 주종이나 약간 푸른빛이 돌기도 한다. 마당바위가 워낙 넓고 평평해 사람 100여명이 동시에 모여앉아 쉬면서 한탄강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마당바위는 강 건너 절벽 위에서 내려 보면 마치 왕발의 형태를 하고 있어 “왕발바위”라고도 한다. 해마다 여름철 마당바위에서는 철원군 사진동호회 주최로 누드사진대회가 열린다. 마당바위가 끝나는 강 쪽 부분에는 동그랗고 커다란 화강암 바위가 두부모같이 가지런히 잘려 정렬되어 있다. 마당바위 건너편 한탄강 서쪽 절벽은 전형적인 주상절리다. 중간에 군데군데 유난히 검은색을 띠기도 하는 절벽은 아래 부분이 더 파여 나가 위부분이 강 쪽으로 쏟아질 것 같은 모양이어서 더 위엄 있어 보인다. 역시 이곳의 절벽도 가로방향으로 7개 켜가 보이는데 화산폭발과 한탄강 생성과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강물과 맞닿은 절벽 아래 쪽 촘촘하고 잘게 썰어진 주상절리는 더 일품이다. 아무리 뛰어난 조각가라 할지라도 전혀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절벽 꼭대기에는 나무들이 열 지어 서있는데 한여울길 난간이 나무를 일렬로 붙들어 매어놓은 듯한 모습이다. 절벽의 왼쪽부분이 많이 무너져 내렸고 그 위로 황토 빛 흙물이 진하게 흘렀는



데 이를 보면 한탄강의 지각변동은 현재도 계속됨을 알 수 있다. 그 무너진 절벽 아래는 검은색 현무암들이 수북하고 또 그 아래쪽 강바닥에는 뾰얀 화강암들이 그들과 대치하고 있다. 화강암과 현무암이 맞닿아 섞여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강의 좌우에서 화강암군대(탱크)와 현무암군대(장갑차) 한탄강을 차지하기 위해 교전을 벌이는 것 같다. 맞닿은 돌무더기들이 강물 진행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고 강물도 힘겹게 이 곳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곳의 형상을 한탄강 서편 절벽위에서 남쪽하류 쪽을 향해 보면 또렷하게 “한반도 지형”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 바위가 무성한 곳이 한반도의 휴전선 DMZ에 해당하는 곳이다. 강 서쪽 절벽 위 한여울길에는 이 “한반도 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마당바위 주변은 동쪽에 화강암 서쪽에 현무암이 진을 치고 있는 모양이다.

▶ 한탄강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모래사장



화강암과 현무암 돌무더기가 한탄강을 가로막고 있는 구간을 지나면 시퍼런 강물이 드넓게 보이고 모래사장이 100여m 펼쳐진다. 강폭도 매우 넓어진다. 일반적으로 한탄강에는 화강암과 현무암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모래사장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곳에 펼쳐진 백사장과 푸른 강물 그리고 강 건너편 모래톱과 그 뒤편 현무암 언덕을 보면 다른 한탄강과는 다른 느낌

이 들리고 그냥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백사장을 지나 한탄강 동편을 따라 내려가면 거대한 화강암 바위가 나타난다. 화강암 절벽 바위틈에는 사람 10여명이 들어가 설 수 있는 석실도 보인다. 동굴이라고 하기에는 입구가 크고 장방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저 오가는 손님들이 쉬어갈 수 있게끔 그늘막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바위 틈새로는 한탄강의 자랑인 돌단풍이 열을 맞춰 쭉 피어있다. 돌단풍은 귀한 식물이나 한탄강 가에 워낙 많이 자생하고 있어 흔해 보인다. 희한하게 일반 평지나 흙이 많은 곳에는 돌단풍이 없다. 흙도 없고 물도 없어 보이는 바위틈새 척박한 곳에서 자라고 있어 더 귀해 보인다.

화강암 바위군락이 끝나는 지점에 가로 세로 20m 정도에 이르는 거대한 화강암이 한탄강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강 밑으로는 아까 그 화강암 군락과 이어져 있으나 강 위로 보이는 모습은 마치 한탄강에 떠있는 함선 같아 보인다. 이 바위 역시 오가는 많은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겨울철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 때 이 바위 위에서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저마다 준비해온 음식을 펼쳐놓고 장사진을 펼쳤던 곳이다. 군데군데 갈라진 두부모에 칼집 낸 것 같이 틈이 있으나 비교적 평평해서

많은 사람들 발길을 잡는다. 강 건너편 서쪽 강변은 기암절벽 주상절리라기보다는 언덕배기에 가깝다. 언덕에 자작나무가 군락을 이뤄 은빛물결이 일렁인다. 군데군데 피어있는 분홍색 진달래는 다른 지역보다 더 진하게 자태를 뽐낸다. 언덕배기 맨 위에는 한여울길 입을 표시하는 난간이 역시 또렷하게 보여 절벽 끝 라인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맨 아래쪽에는 농업용 양수 펌프가 설치된 조그만 건물이 있다. 이곳은 강폭이 매우 넓고 깊이가 얕으며 강물은 시퍼런 색을 띠며 소리 내지 않고 잔잔하게 흘러 내려간다. 이 강폭이 넓은 곳은 겨울철 한탄강얼음트래킹 때 오고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음판 놀이를 단체로 즐기는 구간이다.



▶ 가지각색의 온갖 자갈들이 모여 있는 곳



넓게 흐르던 강물 폭이 좁아지고 물길은 우측으로 모이면서 좌측에는 드넓은 자갈밭이 나타난다. 바위보다는 작고 자갈보다는 큰 지름 15~30cm 정도의 돌들이 70~100m 정도 되는 강바닥에 짝 깔려있다. 화강암과 현무암들로 주종을 이루는데 비율이 엇비슷하다. 큰물이 졌을 때 아주 큰 돌들은 떠내려가고 일정한 크기의 돌들만이 바닥에 박혀 남아있는 것 같다. 오랜

세월 세찬 강물의 흐름에 돌들의 표면이 아주 매끄러워졌다. 자세히 보면 각지고 모난 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곳은 한탄강 돌 전시장처럼 각양각색의 돌들이 2천여 평의 바닥에 즐비하다. 한탄강에서 현무암과 화강암을 너무 많이 자주 봐서인지 다른 돌들도 많겠지만 잘 보이지 않는다. 돌들이 널려있는 곳은 평탄하면서 지대가 조금 높다보니까 평상시에는 물길이 거의 닿지 않고 여름에 장마가 저야만 이곳으로 물이 넘친다. 평상시는 강의 서쪽에 해당하는 쪽으로 물길이 모여 다소 빠르게 흘러간다. 자갈밭 건너편 서쪽 절벽에는 주상절리가 발달해있고 그 절벽 위쪽에 고석정 인근 펜션들이 들어서있다. 절벽 중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생긴 틈새로 보이는 동굴이 눈에 띈다. 큰 구멍이 마치 메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세상 어디론가 통하는 비밀의 문 같아 보이기도 한다. 이 자갈밭을 끼고 강은 왼쪽으로 구부러져 흐르고 하류로 향할수록 경사가 급해지면서 강물의 흐름이 빨라진다. 강물의 흐름소리는 제법 커지고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다.